

Ⅱ 영역별 시험의 성격, 평가 목표, 학습 방법, EBS 연계

01 국어 영역

가. 시험의 성격

국어 영역은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을 기초로 대학 수학(修學)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국어 영역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중 ‘화법과 작문’, ‘언어’ (‘언어와 매체’ 과목 중 언어 부분), ‘독서’, ‘문학’ 과목의 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측정한다.

나. 평가 목표

(1) 내용 영역

화법

화법 능력은 사회생활이나 대학 교육에서 발표·토의·토론 등의 언어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화법 영역에서는 화법에 대한 기본 개념과 아울러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요구되는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이를 위해 대화·토론·협상·면접·발표·연설 등 다양한 유형의 담화 자료들을 활용하여 출제하되, 담화 상황이나 주제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작문

작문 능력은 사회생활이나 대학 교육에서 보고서·문서·논문 작성 등의 과제 수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작문 영역에서는 작문에 대한 기본 개념과 아울러 국어 규범에 기초한 작문 능력, 다양한 유형의 글을 쓰는 데 요구되는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이를 위해 정보전달·소개·보고·설득·비평·건의·친교·정서 표현·성찰 등 다양한 작문 목적과 작문 상황(주제·예상 독자 등)을 설정하여 출제하되, 문항에서 요구하는 작문 과제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언어

언어(문법) 능력은 사회생활이나 학문 활동에서 정확하고 적절한 국어사용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언어(문법) 영역에서는 국어 생활의 기초가 되는 국어 규범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음운·단어(어휘)·문장·담화 등 국어 단위의 체계와 역사에 대한 지식, 담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어 문화 소양, 다양한 시대나 매체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국어 생활을 성찰하는 태도 등을 포함하여 국어사용 능력의 기초가 되는 국어 지식, 정확하고 적절한 국어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국어 규범의 이해와 적용 능력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독서

독서 능력은 정보화 시대의 국어 생활 맥락과 문헌 해석 및 활용 능력이 중시되는 학문 활동 환경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독서 영역에서는 인문학·사회학·자연과학·기술공학·예술 분야의 다양한 글을 제재로 하여, 독서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어휘력,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글을 활용하여 출제하되, 지문에 포함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문학

문학 능력은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심미적·창의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가치 있는 삶과 세계의 창조에 기초가 되는 상상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어휘력,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수용과 생산 능력(사고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또한 작품에 드러나는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문화를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고전시가·고전소설·고전산문·민속극·현대시·현대소설·현대극·시나리오 등 다양한 문학 갈래의 작품을 활용하여 출제하되, 문학사적 평가가 이루어진 작품을 주로 활용하고 작품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2) 행동 영역

어휘 · 개념	어휘 · 개념은 정확하고 효과적인 어휘 사용 능력과 과목별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개념의 이해 능력을 측정 요소로 한다. 어휘의 지시적 · 문맥적 · 비유적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문장과 문단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화법, 작문, 언어, 독서, 문학 영역의 기본 개념도 어휘 · 개념 영역에서 다루게 된다.
사실적 이해	사실적 이해란 언어로 표현된 말이나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 말이나 글에 담긴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말이나 글의 조직과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추론적 이해	추론적 이해란 말이나 글에서 직접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내포적(함축적, 문맥적)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 전제나 논거를 추론하는 능력, 전후 관계를 추론하는 능력, 필자의 견해 · 주장 · 의도를 추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비판적 이해	비판적 이해란 말이나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의 타당성 · 적절성 · 가치 및 우열에 대해 평가하며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적용 · 창의	적용 · 창의란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말이나 글의 개념과 원리를 새로운 맥락에 적용 또는 활용하는 능력, 말이나 글의 생산을 위해 내용을 생성 · 조직 · 표현 · 수정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 학습 방법

1) 화법

화법 영역에서는 화법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여 다양한 담화 상황에 적합한 화법 내용을 생성, 조직, 표현하는 능력과 아울러 의사소통 상황과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화법 내용과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화법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과 다양한 담화 유형별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담화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학습 방법
화법의 본질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의 성격과 기능을 이해하고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며 자신의 말하기를 성찰하기
		화법 활동이 긍정적 자기 정체성 함양과 공동체의 형성·유지·발전에 기여함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화법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의 중요성 파악하기
화법의 원리와 실제	대화	대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를 인식하고 관계 형성에 적절한 방법으로 자기를 표현하기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하기
	토론	상대측 입론과 반론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 반대 신문하며 토론하기
	협상	협상 절차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면접	면접에서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질문자의 요구에 적합한 내용을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답변하기
	발표	청자의 관심, 요구, 지식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적절히 구성하여 발표하기
	연설	화자의 공신력을 이해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연설하기
	상황에 맞는 화행	다양한 상황 맥락을 적절히 인식하고, 그 상황 맥락에 맞게 부탁, 요청, 거절, 사과, 감사의 말을 효과적으로 하기
	언어적·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언어적·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다양한 상황에 맞게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말하기
	화법의 태도	화법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의사소통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 지니기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이해하고, 건전한 화법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지니기

담화 상황과 목적에 맞는 자료 활용하기

예시 문항

◎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발표를 맡은 ○○○입니다. 저는 전통극과 관련된 문화유산 중 '예산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산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산대'를 알아야 하는데요, 산대는 산 모양의 큰 무대입니다. 산대는 대개 고정되어 있었지만 『광해군일기』에 사람들이 산대를 끌어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동이 가능한 산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예산대인데, 이 명칭은 『성종실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산대의 구체적인 모습은 조선 영조 때 중국 사신단의 일정을 담은 『봉사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 자료 제시) 기이한 돌산처럼 보이는 물체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전통 인형극을 위한 예산대의 전체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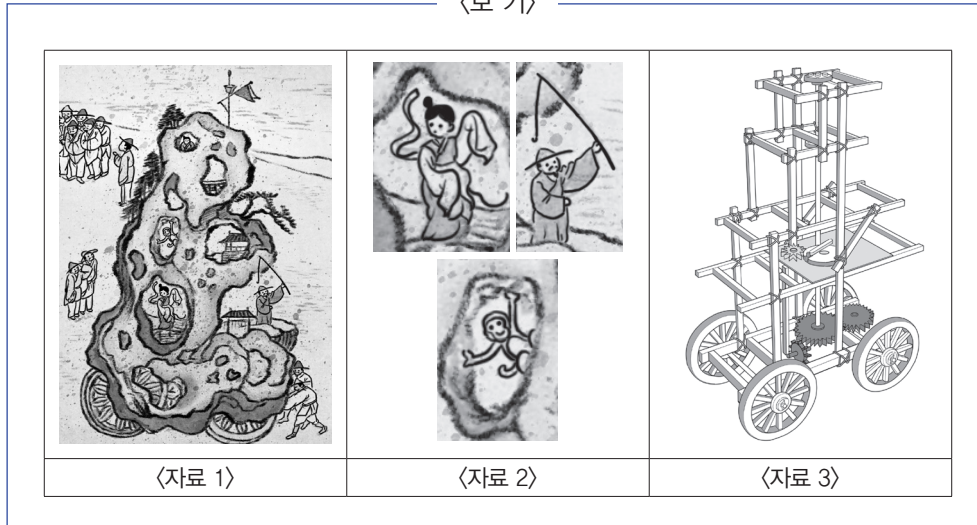
우선, 예산대에 있는 인형들을 알아보을까요? 수레바퀴 바로 위에는 선녀 인형과 낚시꾼 인형이, 그 위에는 원숭이 인형 등이 있습니다. 그림이 작아 잘 안 보일 테니 이 인형들만 확대해서 보여 드릴게요. (㉡ 자료 제시) 지금 보는 선녀 인형은 양 팔을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낚시꾼 인형은 낚시대를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해요. 그리고 원숭이 인형은 돌아가면서 주변 구멍에 얼굴을 내밀어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산대 위의 인형들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산대 아랫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 자료 제시) 여기 보이는 수레바퀴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이 그림은 최근 예산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조를 재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산대를 이동하면, 예산대 내부의 톱니바퀴가 수레바퀴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면서 인형들을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예산대는 이동 시에 인형들을 자동으로 움직여 극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보여 줍니다. 여러분, 예산대에 대해 관심이 좀 생겼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여러분도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전통문화의 또 다른 예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㉔ <보기>는 위 발표에서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① 예산대의 제작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해 ㉔에 <자료 1>을 활용하였다.
 ② 예산대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㉔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③ 예산대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 ㉔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④ 예산대 인형의 형태를 보여 주기 위해 ㉔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⑤ 예산대 인형이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㉔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2020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 2번)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담화 상황 및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화법과 작문-(7) 다양한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청자의 이해를 돕도록 내용을 구성한다.’와 ‘화법과 작문-(8) 시각 자료를 해석하여 핵심 정보로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12화작02-06] 청자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와도 연관된다.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발표 내용의 맥락을 파악하여 발표에서 <보기>의 각 자료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문항의 경우 발표의 ㉔ 부분에서 <자료 3>을 활용하여 예산대의 인형이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명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자료의 선정과 해당 자료와 담화 내용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화법의 원리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담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담화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화자가 활용한 자료가 담화 내용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발표 과정에서 담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료가 선정·활용되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을 판단하며 반박하기

예시 문항

◎ (가)는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이번 시간에는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측이 먼저 입론해 주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 1: 저희는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공 지능과 문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자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어 면접 기회가 확대됩니다. 또한 회사는 면접에 소요되는 인력을 줄여, 비용 절감 측면에서 경제성이 큼니다. 실제로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한 ○○회사는 전년 대비 2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방식의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 데 반해,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에서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객관성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인공 지능 면접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반대 2: 기존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려면 오히려 해당 분야의 경험이 축적된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가 면접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찬성 1: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로는 지원자의 잠재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회사의 인사 정보가 축적된 데이터가 잠재력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인공 지능 면접이 신뢰성도 높습니다. 회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잠재력 파악에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중략)

찬성 1: △△회사는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폐지했지만, 통계 자료에서 보다시피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반대 1: 경제적인 이유로 인공 지능 면접이 활용되고 있지만,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의 한계가 드러난다면 이를 폐지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반대 2는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합한 사례를 요구하고 있다.
- ② [A]의 찬성 1은 상대측의 이의 제기에 대해 반박하며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B]의 찬성 1은 상대측의 진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 ④ [B]의 반대 1은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새로운 정보를 통해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의 찬성 1과 [B]의 반대 1은 모두 상대측이 언급한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추가하고 있다.

(2020학년도 수능 국어 5번)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토론의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적절한 반박을 펼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화법과 작문-(21)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파악하여 듣고 합리적으로 반박한다.’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12화작02-03] 상대측 입론과 반론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 반대 신문하며 토론한다.’와도 연관된다.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토론에서 찬반 양측의 주장과 반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문항의 경우 발표의 [A]에서 찬성 1은 반대 2가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가 면접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 인공 지능 면접의 결과가 지원자의 ‘잠재력’을 판단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반박하고 ‘회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 내용을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론에서 입론 및 반대 신문의 원리 등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론의 입론 및 반론 과정에서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논박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화법과 작문 교과서를 통해 토론의 개념과 기본 요소, 절차 등을 이해하고 실제 토론 과정에서 상대측 논증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질의·응답하는 연습을 해 볼 필요가 있다.

2) 작문

작문 영역에서는 작문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여 다양한 작문 상황에 적합한 글의 내용을 생성, 조직, 표현하는 능력과 아울러 예상 독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과 구조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작문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과 다양한 유형별 글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작문 과정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학습 방법	
작문의 본질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작문의 성격과 기능을 이해하고 독자의 반응을 고려하며 자신의 글쓰기를 성찰하기	
	작문 활동이 긍정적 자기 정체성 함양과 공동체의 형성·유지·발전에 기여함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의 중요성 파악하기	
작문의 원리와 실제	정보를 전달하는 글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소개하는 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필자의 입장 등 작문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기를 소개하는 글쓰기
	보고하는 글	탐구 과제를 조사하여 절차와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보고하는 글쓰기
	설득하는 글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쓰기
	비평하는 글	시사적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쓰기
	건의하는 글	현안을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건의하는 글쓰기
	친교 표현의 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필자의 입장 등 작문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친교의 글쓰기
	정서 표현의 글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쓰기
	성찰하는 글	일상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쓰기
작문의 태도	작문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의사소통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 지니기	
	언어 공동체의 작문 관습을 이해하고, 건전한 작문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지니기	

쓰기 상황에 맞는 계획 및 전략 수립하기

예시 문항

◎ (가)는 작문 과제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과제

- 주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
- 글의 목적: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기
- 예상 독자: 확증 편향의 개념이 생소한 우리 학교 학생들

(나) 학생의 글

만약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증거를 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사형 제도에 찬성, 반대하는 대학생들에게 사형 제도의 효과에 관한 상반된 연구 결과를 제공한 후 반응을 살피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역시 그렇지.’라고 반응한 반면,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이유를 들어 그 연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심리적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확증 편향에 빠질 경우 비판적 사고를 하기 어려워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다. 또한 확증 편향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은 사회적으로 편향된 통념을 형성하여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기존 증거들을 탐[A] 색하게 되어 판단의 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강해질수록 그와 모순되는 증거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기에 학문적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토의와 같은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확증 편향에 빠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판단 착오를 발견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구성원 간 상호 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의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글이나 말로 표현할 때 그것이 불러일으킬 영향을 예상하여 책임감을 가진다면, 판단의 착오를 줄이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집단이 비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서로 갈등하는 일을 막으려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활용된 것은?

- ①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확증 편향의 원인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해야겠다.
- ② 글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확증 편향의 문제점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겠다.
- ③ 글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의 한계와 이를 보완할 방향을 제시해야겠다.
- ④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확증 편향을 보여 주는 예를 들어 개념을 설명해야겠다.
- ⑤ 예상 독자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쟁점을 두고 우리 학교 학생들 간에 벌어진 논쟁을 제시해야겠다.

(2020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 8번)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쓰기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쓰기 계획 및 전략을 세워 글을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화법과 작문-(16) 설득하는 담화나 글의 구조와 내용 조직의 원리를 이해하고 청자와 독자를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한다.’와 ‘화법과 작문-(24) 독자나 글의 유형에 적합하고 설득력 있는 표현 전략을 활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도 연관된다.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쓰기 상황을 고려한 글의 계획 및 전략이 실제 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문항의 경우, (가)의 작문 과제에서 ‘확증 편향의 개념이 생소한 우리 학교 학생들’이라는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나)의 1문단에서 확증 편향을 보여주는 예를 들어 개념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논거와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쓰는 작문의 원리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글 유형 및 쓰기 과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작문 상황과 조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절한 쓰기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다양한 쓰기 상황 속에서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의 요구나 관심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쓰기 계획과 전략이 수립되었는지를 점검해 보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글을 써 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쓰기 상황을 고려한 점검 및 고쳐쓰기

예시 문항

- ◎ (가)는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을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고, (나)는 이에 따라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작문 상황]

- 목적: 지역 방언 보호에 대한 관심 촉구
- 주제: 지역 방언의 보호가 필요하다.
-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들

[독자 분석]

- 지역 방언이 사라져 가는 실태를 잘 모름.㉠
- 지역 방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나) 학생의 초고

세계에서 언어가 사라져 가는 현상은 우리나라 지역 방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 방언의 어휘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방언 어휘 중 특정 단어들을 우리 지역 초등 학생의 80% 이상, 중학생의 60% 이상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또한 2010년에 유네스코에서는 제주 방언을 소멸 직전의 단계인 4단계 소멸 위기 언어로 등록하였다.

┌ 지역 방언이 사라져 가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
[A] 역 방언을 사용하는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표준어가 확
└ 산되어 가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일부 학생들은 표준어로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며 지역 방언이 꼭 필요하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지역 방언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지역 방언의 가치 때문이다. 지역 방언은 표준어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 정서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다슬기' 외에 '울갱이, 데사리, 민물고동'과 같이 동일한 대상을 지역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지역 방언이 있는 것처럼 지역 방언은 우리말의 어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바탕이 된다.

┌ 지역 방언은 우리의 소중한 언어문화 자산이다. 지역 방언의 세계문화유산
[B] 지정이 시급하다. 사라져 가는 지역 방언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자.

㉔ 다음은 학생이 [B]를 고쳐 쓰는 과정의 일부이다. ㉓, ㉔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짝 지은 것은?

점검	[B]에는 (㉓)해야겠다.
----	------------------



고친 글	지역 방언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소중한 언어문화 자산이다. 우리의 언어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방언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시급하다. 사라져 가는 지역 방언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자.
------	--



재점검	고친 글을 읽어 보았는데 (㉔)해야겠다.
-----	--------------------------



다시 고친 글	지역 방언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소중한 언어문화 자산이다. 사라져 가는 지역 방언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자.
---------	--

- ① [㉓: 문장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으니 이를 추가
 ㉔: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
- ② [㉓: 문단이 완결되지 않았으니 마무리하는 문장을 추가
 ㉔: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
- ③ [㉓: 문장 간 연결이 긴밀하지 않으니 연결 표현을 추가
 ㉔: 의미가 중복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
- ④ [㉓: 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가 부족하니 이를 추가
 ㉔: 글의 맥락에 부적합한 담화 표지가 있으니 이를 삭제
- ⑤ [㉓: 주요 개념의 설명이 부족하니 부연 설명을 추가
 ㉔: 앞 문단에서 다룬 중복된 내용이 있으니 이를 삭제

(2020학년도 수능 국어 10번)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쓰기 상황을 고려하여 글을 적절히 고쳐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화법과 작문-(25) 논거의 타당성, 조직의 효과성, 표현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고쳐 쓴다.’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12화작 01-03]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의 중요함을 이해한다.’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도 연관된다.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글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고쳐쓰기 전후의 글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문항의 경우, [B]와 ‘고친 글’을 비교할 때,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나 ‘우리의 언어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와 같이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추가되었으며, ‘다시 고친 글’에는 ‘고친 글’에 있었던 ‘세계문화유산 지정’ 관련 내용이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 삭제되었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기 상황 및 글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글을 고쳐 쓰는 작문의 원리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글 유형 및 쓰기 과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작문 상황과 조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글을 고쳐 쓰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화법과 작문 교과서를 통해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를 학습하고 글의 주제나 예상 독자, 표현 효과 등을 고려하여 문장 및 문단, 글 전체 수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글을 고쳐 쓰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3) 독서

독서 영역에서는 독서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글을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아울러 이를 새로운 상황에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독서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과 유형별 글의 특징을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의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학습 방법
독서의 본질	자신의 독서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좋은 글의 기준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여 읽기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주제와 관련된 여러 글을 비판적으로 비교·분석·통합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읽기
독서의 방법	글의 명시적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중심 내용, 주제, 구조와 전개 방식 등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하며 읽기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기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등을 비판하며 읽기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며 감상적으로 읽기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기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독서의 분야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대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 읽기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글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 읽기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수용과 생산 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매체 자료를 주제적이고 비판적으로 읽기
	독서 계획을 세워 자발적으로 독서를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독서 문화를 형성하기
독서의 태도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태도 지니기

글의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예시 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⑥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바젤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㉓ 받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㉕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㉖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㉗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③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수용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다.
- ④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2020학년도 수능 국어 37번)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지문에서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독서와 문법-(16) 글의 기본 구조와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 전개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며 읽는다.’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와도 연관된다.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문을 읽고 필자가 중심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문항의 경우, 1문단에서 ‘조약’과 ‘국제 관습법’ 및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에 대해 규범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바젤위원회의 BIS 비율 규제 현상이 이들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언급한 후, 2문단부터 4문단까지에서 BIS 비율의 개념, ‘바젤 I’ 협약부터 ‘바젤Ⅲ’ 협약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양상을 기술하였다. 이어 5문단과 6문단에서는 바젤 협약의 국제적 가입 현황과 더불어 각국에서의 구속력에 대해 ‘말랑말랑한 법’과 ‘딱딱한 법’이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하였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자의 사고 전개 과정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 내용 전개 방식의 여러 가지 유형과 특성 등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자가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주제와 중심 내용에 적합한 내용 전개 방식을 선택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지문을 읽으면서 내용 전개 방식의 특성을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내용 전개 방식의 여러 가지 유형과 각 유형이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 학습하고,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으면서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화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 비교 · 분석하기

예시 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 이신론(理神論)적 관점을 주장한다. 그는 불사하는 존재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며, 다른 어떤 것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다.

한편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고 본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는다. 더 나아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인간은 사후(死後)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살아 있는 동안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설명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여 비스듬히 떨어지고 충돌해서 튕겨 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주는 이러한 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 의지의 단초로 삼는다.

에피쿠로스는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 윤리학을 펼쳐 나간다. 결국 그는 인간이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㉔ 윗글의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라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며, 일체의 훌륭한데 있어서도 탁월한 존재이지. 언제나 신은 필연성을 따르는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성장과 쇠퇴, 분리와 결합에 있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이르도록 이끈다네.

- ① 신을 ‘모든 것들의 원인’으로 보는 <보기>의 생각은,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② 신이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모든 것들을 이끈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은, 우주를 ‘우연의 산물’로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③ 신을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로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불사하는 존재’라고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군.
- ④ 신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는 <보기>의 생각은, 행복이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⑤ 신이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의 외부에서 온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군.

(2020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22번)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두 자료를 읽고 동일한 화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독서와 문법-(21) 글의 화제나 주제, 필자의 관점 등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한다.’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와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와도 연관된다.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문과 <보기>에서 동일한 화제, 즉 신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문항의 경우, 2문단의 ‘신들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와 <보기>의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를 통해, 에피쿠로스와 <보기>의 화자는 공통적으로 신이 인간의 세계 외부에 존재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의 외부에서 온다고 보는 설명은 두 관점 간의 공통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답은 ⑤이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고, 둘 이상의 자료에 나타나 있는 관점들을 비교·분석하는 주제 통합적 독서 방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의 화제, 주제, 필자의 관점 등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는 둘 이상의 글을 읽고 비교·분석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글의 화제, 주제, 필자의 관점 등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는 글들을 선정하여, 각각의 글에서 글의 화제, 주제, 필자의 관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분석해 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4) 언어

언어(문법) 영역에서는 언어의 본질, 국어 단위의 체계, 국어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 자료를 탐구하여 국어의 특징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국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특징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학습 방법
언어의 본질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탐구하고 이해하기
	국어의 특성을 타 언어와 비교하여 이해하고 세계 속에서 국어의 위상을 이해하기
국어의 탐구와 활용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음운의 체계와 변동에 대해 탐구하기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품사에 따른 개별 단어의 특성 탐구하기
	단어의 짜임과 새말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생활에 활용하기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관련 지식을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하기
	문장의 짜임에 대해 탐구하고 정확하고 적절하게 문장을 사용하기
	문법 요소들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실제 국어생활에 활용하기
	담화의 개념, 구성 요소, 맥락 등을 탐구하여 담화를 적극적으로 생산·수용하기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기
	지역, 세대, 성별, 계층, 문화 등에 따른 언어 사용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국어 자료를 생산하기
	다양한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국어 자료를 생산하기
언어에 관한 태도	자신의 국어 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 지니기
	현대 사회에서 언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언어문화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 지니기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예시 문항

㉠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선생님: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부정확한 발음에 대해 알아보
 까요? 우선 아래 표에서 부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예	찰흙이	안팎을	넋이	끝을	숲에
부정확한 발음	[찰흐기]	[안파글]	[너지]	[꼬출]	[수베]
	↓	↓	↓	↓	↓
정확한 발음	[찰흘기]	[안파골]	[넉씨]	[꼬틀]	[수페]

다 봤나요? 그럼 정확한 발음을 참고하여, 부정확한 발음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해
 볼까요?

학생: ㉡

선생님: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정확한 발음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세요.

- ① ‘찰흙이’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습해야 하는데, [찰흐기]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연습을 했습니다.
- ② ‘안팎을’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습해야 하는데, [안파글]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 ③ ‘넋이’는 연습을 하고 된소리되기를 적용해야 하는데, [너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 ④ ‘끝을’은 연습을 하고 구개음화를 적용해야 하는데, [꼬출]은 구개음화를 적용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 ⑤ ‘숲에’는 거센소리되기를 적용하지 않고 연습해야 하는데, [수베]는 거센소리되기를 적용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 13번)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음운 변동과 관련지어 부정확한 발음의 이유를 탐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독서와 문법-(6) 음운의 변동을 탐구하고 올바르게 발음하며 표기하는 생활을 한다.’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12언매02-01]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음운의 체계와 변동에 대해 탐구한다.’와도 연관된다.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주어진 단어들을 부정확하게 발음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틀 음운 변동과 관련지어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문항의 경우, <보기>에서 ‘안팍을’을 [안파글]로 발음한 이유는 ‘안팍’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을’이 왔으므로 앞말의 받침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 없이 연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후 연음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음 현상 및 음운 변동의 원리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운의 체계 및 음운 변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통해 음운의 개념 및 체계, 음운 변동의 원리를 학습하고 일상에서 음운 변동 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발음하는 다양한 사례를 바르게 고쳐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의어의 의미 관계 이해하기

예시 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의어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말한다. 다의어에서 기본이 되는 핵심 의미를 중심 의미라고 하고,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주변 의미라고 한다. 중심 의미는 일반적으로 주변 의미보다 언어 습득의 시기가 빠르며 사용 빈도가 높다. 그러면 다의어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첫째, 주변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는 문법적 제약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 살을 먹다’는 가능하지만 ‘한 살이 먹히다’나 ‘한 살을 먹이다’는 어법에 맞지 않는다. 또한 ‘손’이 ‘노동력’의 의미로 쓰일 때는 ‘부족하다, 남다’ 등 몇 개의 용언과만 함께 쓰여 중심 의미로 쓰일 때보다 결합하는 용언의 수가 적다.

둘째, 주변 의미는 기존의 의미가 확장되어 생긴 것으로서, 새로 생긴 의미는 기존의 의미보다 추상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손’의 중심 의미가 확장되어 ‘손이 부족하다’, ‘손에 넣다’처럼 각각 ‘노동력’, ‘권한이나 범위’로 쓰이는 것이 그 예이다.

셋째, 다의어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

줄 뿔

- ① 새끼 따위와 같이 무엇을 묶거나 동이는 데에 쓸 수 있는 가늘고 긴 물건.
예) 줄로 묶었다.
- ② 길이로 죽 벌이거나 늘어 있는 것. 예) 아이들이 줄을 섰다.
- ③ 사회생활에서의 관계나 인연. 예) 내 친구는 그쪽 사람들과 줄이 닿는다.

예를 들어 ‘줄’의 중심 의미는 위의 ①인데 길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 유사하여 ②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연결이라는 속성이나 기능이 유사하여 ③의 뜻도 지니게 되었다. 이때 ②와 ③은 ‘줄’의 주변 의미이다.

그런데 ㉠ 다의어의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앞’은 ‘향하고 있는 쪽이나 곳’이 중심 의미인데 ‘앞 세대의 입장’, ‘앞으로 다가올 일’에서는 각각 ‘이미 지나간 시간’과 ‘장차 올 시간’을 가리킨다. 이것은 시간의 축에서 과거나 미래 중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지에 따른 차이로서 이들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은 유지된다.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지문에서 언급한 다의어의 의미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독서와 문법-(10) 단어의 의미 관계와 의미 변화의 양상을 탐구하고 이해한다.’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12연매02-04]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한다.’와도 연관된다.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문의 ㉠에 해당하는, 다의어의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 관계를 맺는 경우만을 <보기> 자료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이 문항의 경우, <보기>에서 민수가 말한 ‘빚쟁이’는 ‘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뜻하지만 영희가 말한 ‘빚쟁이’는 ‘빚을 진 사람’을 뜻하고 있음을 맥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영희가 말한 ‘금방’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에’를 뜻하지만 민수가 말한 ‘금방’은 ‘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에’를 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번이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의어의 의미와 의미들 사이의 관계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의어가 지닌 다양한 의미와 이 의미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적절한 어휘를 찾아 사용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통해 다의어의 의미와 의미 관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의미 관계를 보여 주는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맥락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5) 문학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생산,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재구성하는 능력과 아울러 인간과 세계에 대한 문학적 인식과 표현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문학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학 작품을 비판적·창의적으로 감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학습 방법
문학의 본질	문학의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을 중심으로 인간의 삶을 위한 문학의 효용과 가치를 주체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기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비평적으로 탐구하며 작품을 감상하기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기
	문학과 인접 분야(다른 형식의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문화적 현상 등)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하기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하기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하기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하기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감상하기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하기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하기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해서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기
문학에 대한 태도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 전통적 문학과 현대적 문학 등 다양한 양태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발전 과정을 탐구하기
	문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 지니기
	문학 활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지니기

작품의 서술 방식을 고려하여 반응하기

예시 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는 증풍으로 쓰러져 정상적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다. 때문에 ㉠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

한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길에 허연 인공 설탕 가루를 묻힌 ‘미키대장군’이라는 캐러멜을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넌름 집어먹은 적이 있었다. 하나에 이 원, 다섯 개에 십 원이었다. 잠시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채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 목덜미에 당수를 한 대 세계 내려꽂는 것이었다. 그 캐러멜 갑 안에 미키대장군이 몇 개 들어 있는지조차 훤히 꿰차고 있는 아버지였다.

—이런 민한 종간나래! 암생이처럼 기러케 쓸라닥질을 허자면 이 가게 안에 뭐가 하나 제대로 남아나겠니, 응?

그러고 나서는 좀 머쓱했는지 입이 한 발쯤 튀어나와 뽀로통해서 서 있는 내게 미키대장군 네 개를 집어 내미는 거였다.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파니까니, 하면서 억지로 내 손아귀에 쥐어주었다. ㉡ 나는 그 무허가 불량 식품인 캐러멜 네 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쥘 채 서 있었다.

—넌름 털어 놓지 못하겠니, 으잉?

목덜미에 아버지의 가벼운 당수를 한 대 더 얹은 다음에야 한입에 털어 넣고 돌아서 나왔다. 아버지도 가게 일을 수월하게 보려면 잔심부름꾼인 나를 무시하고는 아쉬울 때가 많을 터였다. 워낙 짧은 밀천으로 가게를 꾸려 가자니 아버지는 물건 구색을 맞추느라 하루에도 많을 때는 세 번까지 시장통 도매상으로 정부미 포대를 거머쥐고 종종걸음을 쳐야 했고, 막내인 나는 번번이 아버지의 뒤로 팔을 늘어뜨린 채 졸졸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땠 그제 죽도록 싫었다. 하마 시장통에서 야구 글러브를 끼거나 조립용 신형 무기 장난감 상자를 든 반 친구를 만나거나, 심지어 과외나 주산 학원을 가는 여자 아이들을 만나는 날에는 정말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중략)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그 정부미 자루를 날라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한숨을 돌린 뒤 자루를 풀고 물건을 정리해 보니 스무 병이 외야 할 소주가 두 병이 모자란 채 열여덟 병만 온 것이었다.

㉔ 아버지의 얼굴은 맞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 왜냐하면 그 덜 온 두 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몽땅 팔아 봤자 결국 본전치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내 등을 떼밀어 물건을 받아 온 수도상회의 흑부리 영감한테 내려 보냈다. 아버지는 말주변도 말주변이었지만 중풍 후유증 때문에 약간의 언어 장애가 있어 일부러 나를 보냈던 것이다.

— 뭐 하러 왔네?

가게 안에 북적거리는 손님들에게 셈을 치러 주느라 몇 번이고 주판알을 고르는데 바쁜 흑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 두는 데 성공한 나는 더듬더듬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나 컷등에 연필을 꽂은 채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 이리진 듯한 왼쪽 이마뺨의 눈갈사탕만 한 흑을 어루만지며 들던 ㉕ 흑부리 영감은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애초 자기 눈앞에서 까 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나중에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가서 하소연을 해 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성 경고뿐이었다. 거래가 끊긴다면 아버지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흑부리 영감은 아버지한테 무슨 큰 특혜를 내려 주듯이 거래를 더 준다고 허락을 놓았었다. 같은 함경도 동향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하긴 흑부리 영감한테는 매번 소주 열 병 안쪽에다 새우깡 열 봉지, 껌 대여섯 개, 빵 예닐곱 개 등 일반 소매가격 구매자보다 더 많은 물건을 떼어 가지도 않으면서 부득부득 도매판으로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해 쌓는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 거의 표가 나지 않을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㉖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 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열여덟 병의 소주를 넘 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기억코 아들인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했다. 아! 아버지…….

— 김소진, 「자전거 도둑」—

◎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는 주로 세 가지 서술 방식을 활용한다. 첫째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 둘째는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만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그 묘사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 셋째는 서술자가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유년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둘째 방식에서처럼 그 묘사에 대해 해석해야 한다. 셋째 방식에 유년 ‘나’의 심리가 함께 서술되면 독자는 인물의 심리에 쉽게 공감하게 된다.

- ① ㉠: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하여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겠군.
- ② ㉡: 서술자가 유년 ‘나’의 행위를 묘사하여 독자는 그 행위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겠군.
- ③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아버지의 내면을 스스로 해석하겠군.
- ④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흑부리 영감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했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장면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겠군.
- ⑤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하면서 유년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는 그 심리에 공감하겠군.

(2020학년도 수능 국어 32번)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작품의 서술 방식 및 그 효과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문학-(2)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창작한다.’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10국05-01]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와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와도 연관된다.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작품에서 나타나는 서술 방식의 특징을 변별적으로 확인하고 각각의 서술 방식이 독자에게 어떠한 효과를 미칠 것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문항의 경우,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품의 서술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밑줄 친 ㉠~㉣이 그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볼 수 있다. ㉣의 경우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로 존칭을 담은 3인칭 대명사 ‘당신’이 사용되고 있어 성인 ‘나’의 시점에서 당시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음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번 선지에서는 이와 달리 유년 ‘나’의 시선으로 제한하여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이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서술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문학 작품에서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에서 문화적·관습적으로 형성되어 온 고유 언어 형식을 파악하는 한편,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비평적으로 탐구하여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문학 교과서를 통해 문학 작품의 언어 형식이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상호 교환하여 각각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예시 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 고산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름이 모로더니
주모복거(誅茅卜居) 하니 벗님너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를 상상하고 학주자(學朱子)를 흐리라 <1수>

일곡은 어디미오 ㉡ 관암에 히 비췌다
평무(平蕪)에 너 거드니 원산(遠山)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을 노코 벗 오논 양 보노라 <2수>

이곡은 어디미오 화암에 춘만(春晚)커다
벽파*에 곳을 췌워 야외로 보너노라
㉢ 사름이 승지(勝地)를 모로니 알게 혼들 엇더리 <3수>

오곡은 어디미오 은병(隱屏)이 보기 도타
수변(水邊) 정사는 소쇄흙*도 ㄴ이 업다
이 중에 강학(講學)도 흐려니와 영월음풍 흐리라 <6수>

칠곡은 어디미오 ㉣ 풍암에 추색(秋色) 도타
청상(淸霜) 옆게 치니 절벽이 금수(錦繡) ㄷ로다
한암(寒巖)에 혼즈셔 안자 집을 잇고 잇노라 <8수>

구곡은 어디미오 문산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무쳐세라
㉤ 유인(遊人)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업다 흐더라 <10수>

- 이이, 『고산구곡가』

*녹준: 술잔 또는 술동이.

*벽파: 푸른 물결.

*소쇄흙: 기운이 맑고 깨끗함.

◎ <보기>를 활용하여 (나)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이의 생애를 기록한 연보에는, 그가 고산구곡에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가 무이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과 「고산구곡가」의 창작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그가 고산구곡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유한 경험을 소개한 「송애기」에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려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 ① 고산구곡에서의 생활에 대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고산구곡이 작자와 ‘벗님’들의 교유 장소로도 활용되었음을 추리할 수 있겠군.
- ② 작품 창작 이후와 관련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학주자’를 하려는 작자의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추측할 수 있겠군.
- ③ 정사에 대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은병’이 주자를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선택된 공간이기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참된 즐거움과 관련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강학’과 ‘영월음풍’이 모순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행위임을 유추할 수 있겠군.
- ⑤ 자연의 감상에 대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바위를 덮은 ‘눈’에서 자연과 합일을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겠군.

(2020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 20번)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문학 작품 창작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의 심층적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문학-(8)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와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와도 연관된다.

문학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대 상황이 실제 문학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문항의 경우, 독자는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이가 고산구곡에 정사를 건립하였던 당시의 창작 맥락을 재구성할 수 있다. <보기>에서 주된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송애기」의 내용이다. 이에 근거하여 보면 「고산구곡가」를 창작하던 당시, 이이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아야 한다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0수>에서 기암괴석을 뒤덮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눈’은 화자와 합일을 이루고 있다기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 거리를 두는 감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생애, 시대 상황 등을 해석 맥락으로 구성하여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 원리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생애, 시대 상황 등 작품의 의미 구성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배경지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연성 있는 의미 맥락을 형성하여 작품의 심층적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먼저 문학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배경지식을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습자가 확보한 배경지식을 맥락으로 구성하여 문학 작품을 다양하게 이해·감상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라. 수능-EBS 연계 방식 및 유형

학습자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수능-EBS 연계 출제 정책’에 따라 국어 영역에서는 5가지 유형의 연계 방법을 활용하여 연계 문항들을 개발하고 있다. 각 유형별 특징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이 수능 국어 영역을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 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제시한다.

1) 지문 활용 유형

지문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다양한 분야의 독서 지문이나 문학 작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활용하여 지문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조준구와 아내 흥 씨는 서희가 물려받아야 할 최 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채고, 하인 삼수를 내세워 마을 사람들을 착취한다. 한편, 윤보는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는데 삼수가 찾아온다.

“아무리 그리 시치미를 떼 쌓아도 알 만치는 나도 알고 있으니께요. 머 내가 휘방을 놓자고 찾아온 것도 아니겼고,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어서 온 긴데 너무 그러지 마소. 한마디로 딱 찢라서 말하겠소. 왜놈들하고 한통속인 조가 놈을 먼지 치고 시작하라 그 말이오. 고방에는 곡식이 썩을 만큼 쌓여 있고 안팎으로 쌓인 기이 재물인데 큰일을 하자 카문 빈손으로 우찌 하겠소. 그러니 왜놈과 한통속인 조가부터 치고 보든 ㉠ 핑 목고 알 묵는 거 아니겠소.”

“야아가 참 제정신이 아니구마는.”

“하기사 전력이 있으니께 나를 믿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소. 하지마는 두고 보든 알 거 아니오?”

“야, 야 정신 산란하다. 나는 원체 입이 무겁고 또 초록은 동색이더라도 내 안 들은 거로 해 둘 기니 어서 돌아가거라. 공연히 신세 망칠라.”

윤보는 삼수 등을 민다.

“이거 놓으소. 누가 안 가까 바 이려요? 지내 놓고 보든 알 기니께요. 내가 머 염탐이라도 하러 온 줄 아요? 흥, ㉡ 그랬을 양이든 벌써 조가 놈한테 동네 소문고 해바쳤일 기고 읍내서 순사가 와도 몇 놈 왔일 거 아니오.”

큰소리로 지껄이며 삼수는 언덕을 내려간다.

헌병이 총대를 들이대자 겁에 질린 삼수는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되었거나 믿는 구석이 있어서 조준구를 향해 도움을 청하였다.

“이놈! 이 찢어 죽일 놈 같으니라구!”

무섭게 눈을 부릅뜬 조준구를 바라본 삼수 얼굴은 일순 백지장으로 변한다.

“예? 머, 머, 머라 쟈십니까?”

“이놈! 네 죄를 몰라 하는 말이나? ㉠ 간밤에 감수한 생각을 하면 네놈을 내 손으로 타살할 것이로되 으음, 능지처참할 놈 같으니라구. 이놈! 어디 한번 죽어 봐라!”

“나, 나으리! 꾸, 꿈을 꾸시는 겁니까? 이, 이 목심을 건지 디린 이, 이 삼수 놈을 말입니다!”

그러나 조준구는 바로 저놈이 폭도의 앞잡이었다고 이미 한 말을 다시 강조할 뿐이다. 물론 이 경우 폭도란 의병을 일컫는 것이다.

- 박경리, 「토지」 -

◎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토지」는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수난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는데, 「토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층, 친일 세력, 저항 세력, 기회주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때로 협력하고 때로 대립하면서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 ①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던 윤보가 삼수의 제안을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아, 윤보는 삼수와의 협력 관계를 거부한 것이군.
- ② 타작마당에 모인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윤보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조준구로 대표되는 친일 세력과 대립하고 있군.
- ③ 봉순이가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아,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가 흔들리며 봉순이와 서희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고 있군.
- ④ 흥 씨의 모욕에 죽을 생각을 했던 서희가 흥 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한 것으로 보아, 흥 씨와 서희는 대립 관계를 이어 가겠군.
- ⑤ 윤보에게 조준구를 치라고 했던 삼수가 조준구의 목숨을 구해 줬다는 것으로 보아, 조준구와 삼수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군.

(2020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18번)

EBS 연계 부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경남 하동의 대지주 최 참판 댁의 외동딸 최서희는 아버지를 잃고 큰 집안의 주인이 되었지만, 친척 어른인 조준구에게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

연못가에 무릎 꿇고 앉아 있던 서희는 / “봉순아.” / 하고 불렀다. “예, 애기씨.” / “너 또 울었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으며 봉순이는 대답을 않는다. 무릎 사이로 눈을 치뜨고 보는데 연못 위에 버들 가지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연두색 버들가지에 질푸른 하늘, 구름도 없는 푸른 하늘 역시 출렁이고 있었다.

(중략)

“울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 “안 올라꼬 하지마는.”

얼굴을 들고 봉순이는 무릎 위에 깎지를 낀다. 깎지 낀 손 위에 턱을 얹는다.

“자꾸자꾸 눈물이 납니다. 생각할수록 서럽고 옴마가 보고 저버서 그만 죽어 부렸으면 싶습니다.”

“너마저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니?”

“그러기 말입니다. 와 그렇기 애는 먹있고 싶으니 옴마가 다시 살아만 온다면, 다시는.”

“우리 할머님께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눈물을 아니 보이셨다.”

어른스럽게 가르치는 것 같다. 그 의젓한 투에는 김 훈장 훈도의 영향도 있었고 범절을 지키려는 강한 자부심도 있었을 것이다. / “하지마는 애기씨도 전에는 많이 우셨습니다.”

서희의 의젓한 품을 무심하게 깨뜨려 버린다. / “언제?” / 금세 샅쭉해져서 서희는 묻는다.

“전에 어릴 적에 말입니다. 막 어머니 데리고 오라 캄서.” / “…….”

“한분 울음을 잡혔다 싶으면 온 집안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옴마는 아이구 우짜꼬 아이구 우짜꼬 함시로, 애기씨는 생각 안 나십니까?”

서희는 얼굴빛이 변하고 깎은 듯 둥근 이마에 푸른 줄이 뻗는다. / “그건 철없을 때 얘기야!”

쇠된 목소리가 사방에 깨어져서 울린다. 비로소 봉순이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다.

(하략)

- 박경리, 「토지」 -

(2020학년도 수능특강 국어 영역 문학 299~301쪽)

2020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16번~18번 세트는 2020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의 299~301쪽에 수록된 지문을 활용하여 새롭게 지문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한 것이다.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에는 친척 어른인 조준구에게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서희의 상황이 나타난 작품의 전반부 장면이 수록되었다. 이러한 작품 감상을 바탕으로 『토지』의 이후 다른 장면을 활용하여 출제한 것이 2020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16번~18번 지문과 문항 세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의 지문이나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한 후 이와 연관되는 주제나 내용을 담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글이나 문학 작품을 능동적으로 찾아 학습할 필요가 있다.

2) 핵심 제재 · 논지 활용 유형

핵심 제재 · 논지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화법, 작문, 독서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여 담화나 작문 상황 등을 새롭게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중략)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 ②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 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③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④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020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27번)

EBS 연계 부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특정한 단기 금리를 정책 금리로 정하고 이를 통해 시중에 통화량을 확대하여 소비 및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리 중시 통화 정책이었다. 정책 금리를 낮춰 시장 금리도 낮아지면 기업은 낮은 이자로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와 생산을 늘리게 된다. 가계 역시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통해 소비를 늘릴 여력이 발생한다. 투자와 소비가 늘면 고용과 생산이 증가하고, 다시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면서 경제 전체가 선순환을 그리게 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정책 금리를 낮추었지만,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를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국채 투자의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자.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은 그 채권의 이자율과 역의 관계를 가지며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채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지만, 채권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굳이 높은 이자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비싸진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채권 매입과 같은 투자를 기피하고, 위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비도 위축되면서 시중에 돈이 충분하게 공급되어도 돈을 그냥 쌓아 두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를 양적 완화라 한다. (이하 생략)

◎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책 금리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 ② 채권이 비싸지면 채권 수익률 상승에 대한 기대로 인해 채권 투자가 늘어난다.
- ③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서 유효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 ④ '버냉키식 양적 완화 정책'은 중앙은행 외의 금융 기관들이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 ⑤ 양적 완화 정책은 정책의 목표 수준을 넘어선 물가 상승이나 민간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

(2020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118~121쪽, 120쪽 2번)

2020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27번~31번 세트는 2020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의 118~121쪽에 수록된 지문 및 문항의 핵심 제재를 활용하여 개발한 것이다.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에 수록된 지문 및 문항에서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통적 통화 정책인 양적 완화의 기능 및 위험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교재에서 다룬 양적 완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대안으로 등장한 ‘거시 건전성 정책’의 배경과 기능을 다루고 있는 것이 27번~31번 세트 지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의 화법, 작문, 독서 지문의 핵심 제재나 논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보는 국어 활동을 수행하며 학습할 필요가 있다.

3) 자료 활용 유형

자료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예시한 자료, 문항에서 제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화법, 작문, 문법 영역 등에서 지문, <보기>, 답지의 사례 등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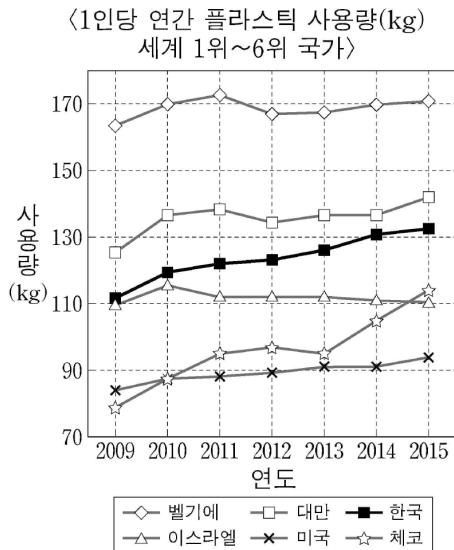
예시 문항

◎ 다음은 (나)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활용하여 (나)의 ㉠~㉣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논문 자료

플라스틱은 가공성이 우수하고 저렴하지만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 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플라스틱은 성분에 따라 PVC, PP, PET 등으로 나뉘는데, 염화 비닐이 주성분인 PVC는 질기고 깨지지 않아 투명 지퍼백, 필통 등에 쓰인다. PVC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프탈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식품 용기, 학용품 등에 사용되는 PP나 음료 병 등에 주로 사용되는 PET는 프탈레이트가 첨가되지 않는다.

㉡ 통계 자료



㉢ 보고서 자료

〈재질에 따른 재활용 정도〉

재질	재활용 정도	
	용이함	어려움
플라스틱	PVC	○
	PP	○
	무색 PET	○
	유색 PET	○
철	○	

- ① ㉠: ㉢를 참고하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려면 필통의 지퍼는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이지만 몸체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인 것이 문제라고 수정해야겠군.
- ② ㉡: ㉠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을 드러내려면 PVC로 필통을 만드는 이 유가 가격과 가공성 면에서 유리하며 질기기 때문일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③ ㉔: ㉓를 활용하여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하려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2009~2015년 기간 중 세계 3위에 해당할 만큼 많고 그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고 수정해야겠군.
- ④ ㉔: ㉓와 ㉔를 참고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려면 PVC는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첨가되는 물질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⑤ ㉔: ㉓와 ㉔를 참고하여 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면 필통의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유지할 경우에 재활용이 용이하고 프탈레이트가 첨가되지 않는 PP로 바꾸어 달라고 수정해야겠군.

(2020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10번)

EBS 연계 부분

◎ (나)의 토론 참여자가 <보기>의 자료를 토론에 활용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PVC(폴리염화 비닐)는 염화 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플라스틱으로 가공성이 좋아 포장재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주로 전자 제품 포장재, 수액 팩, 랩 포장재, 투명 지퍼 백 등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처리 또는 재활용 공정에서 열을 가할 시 유해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할 확률이 있어 환경적 위협 요소가 있다. PVC 재질은 합성수지 포장재 중 2017년 기준으로 0.5%를 차지하여 사용 비중이 낮은 반면 재활용 선별 시에 다른 재질과 육안으로 구분이 잘 되지 않아 재활용 비용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① PVC 재질이 사용 비중이 낮다는 점에 주목하여 찬성 측에서 포장재가 재활용률을 낮게 한다는 근거로 활용한다.
- ② PVC 재질이 가공성이 좋다는 점에 주목하여 찬성 측에서 포장재가 소비자에게 미적인 즐거움을 준다는 근거로 활용한다.
- ③ PVC 재질이 재활용 비용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찬성 측에서 포장재 규제가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근거로 활용한다.
- ④ PVC 재질이 재활용 공정에서 가열 시 환경적 위협 요소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반대 측에서 포장재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근거로 활용한다.
- ⑤ PVC 재질은 재활용 선별 시 다른 재질과 육안으로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반대 측에서 포장재가 포장된 제품의 내용물 확인을 어렵게 한다는 근거로 활용한다.

(2020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137쪽 3번)

2020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 10번은 2020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의 137쪽 3번 문항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와 답지를 새롭게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한 것이다.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에 수록된 자료에는 PVC 재질의 특성과 재활용 가능성 등이 설명되어 있다. 이 자료에 설명된 개념을 활용하여 PVC를 포함한 다양한 플라스틱 재질의 특성을 <자료>로 활용하여 문항을 개발한 것이 2020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10번 문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에 제시된 지문이나 <보기>, 답지의 자료 등을 통해 익힌 내용을 새로운 사례들에 적용해 보는 활동을 수행하며 학습할 필요가 있다.

4) 문항 아이디어 활용 유형

문항 아이디어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문항의 내용 및 형식을 활용하여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화법, 작문 등 모든 영역에서 활용한다. 국어교육 평가의 관점에서 보편성을 지닌 문항 유형, 참신성을 지닌 문항 유형을 개발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

- ◎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끝 부분에 새로운 문단을 이어 쓴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친구의 조언: 1문단에서 제기한 첫째 물음에 대해 너의 입장을 드러내야 할 것 같아. 둘째 물음에 대해서는 2문단에 썼던 두 단어를 활용하여 인간과 인공 지능의 관계를 드러내는 게 좋겠어.

- ① 인공 지능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을 대신할 수 없다. 인공 지능과 인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은 불가능하다.
- ② 인공 지능은 인간을 대신하기보다는 보조하는 도구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공 지능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 ③ 인공 지능은 인간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인공 지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인간이 객체가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
- ④ 인공 지능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주체는 인간이고 인공 지능은 인간이 이용하는 객체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 ⑤ 객체인 인공 지능을 이용하는 인간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은 인공 지능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2020학년도 수능 국어 7번)

EBS 연계 부분

- <보기>는 ‘학생 2’의 상호 평가 의견이다. 의견에 따라 [A] 부분에 추가할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학생 2: 글의 마지막에 제목에서 이야기한 ‘성공의 비법’을 강조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식당이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이유와 그 이면에 있는 식당 주인의 노력을 이야기하면 좋겠지. 그리고 식당 주인의 성공이 학생 독자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

- ① ○○ 식당이 맛집으로 이름난 데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공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경쟁력이 있는 것은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드러나게 마련이다.
- ② ○○ 식당은 현재 가격은 싸지만 만족도가 높아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장 사장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의 성공의 비법은 항상 낮은 자세로 남들에게 배우는 데 있다.
- ③ 사람들이 ○○ 식당을 찾는 이유는 싸고 질 좋은 고기를 팔기 때문이다. 하루에 돼지 한 마리를 더 준다는 생각으로 덤으로 손님들에게 더 주는 판매 전략이 성공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정신은 우리 학생들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 ④ ○○ 식당은 실패를 딛고 일어난 장 사장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장 사장은 남들이 가지 않은 외롭고 험한 길을 갔지만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되었다. 것처럼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해 나갈 때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 ⑤ ○○ 식당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격에서 확실한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장 사장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렸던 것이 성공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을 그는 보여 준다.

(2020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159쪽 4번)

2020학년도 수능 국어 7번 문항은 2020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의 159쪽에 수록된 4번 문항의 형식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이다.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에 수록된 문항은 조건에 맞게 표현하는 문항으로, 그동안 수능 기출 문항뿐만 아니라 EBS 연계 교재에서 자주 제시되었던 문항이다. 2020학년도 수능 국어 7번 문항은 ‘친구의 조언’에 제시된 조건을 활용하여 글의 일부를 표현하는 문항이었다. 이처럼 문항 아이디어 활용 연계 방식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능 기출 문항은 물론 EBS 연계 교재에서 자주 다루지는 문항 유형에 주목하며 학습할 필요가 있다.

5) 개념 · 원리 활용 유형

개념 · 원리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서 국어과 교육과정상의 기본적인 개념 · 원리를 설명한 부분 또는 이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수록하고 있는 문항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

◎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중세 국어에서는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종결 어미나 보조사가 달리 쓰인다. 예를 들면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될 때 판정 의문문에서는 종결 어미 ‘-녀’, 설명 의문문에서는 종결 어미 ‘-뇨’가 쓰인다. 반면, 체언에 보조사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될 때 판정 의문문에서는 보조사 ‘가’, 설명 의문문에서는 보조사 ‘고’가 쓰인다. 그런데 주어가 2인칭일 때에는 의문문의 종류와 관계없이 종결 어미 ‘-ㄴ다’가 쓰인다. 중세 국어 의문문의 예는 아래와 같다.

- 이 일후미 (㉠)
[이 이름이 무엇인가?]
- 네 엇데 아니 (㉡)
[네가 어찌 안 가는가?]
- 그되논 보디 (㉢)
[그대는 보지 않는가?]

㉠	㉡	㉢
① 므스고	가노뇨	아니호는다
② 므스고	가는다	아니호는다
③ 므스고	가노뇨	아니호느녀
④ 므스가	가는다	아니호는다
⑤ 므스가	가노뇨	아니호느녀

(2020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13번)

EBS 연계 부분

의문문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문사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은 체언 뒤에 바로 의문 보조사 ‘고/오’가 붙거나, ‘-노’, ‘-료’ 등의 종결 어미에 의해 실현됨. 예 이 었던 사름고/므슴 마를 니르노노 • 가부(可否)를 묻는 판정 의문문은 체언 뒤에 바로 의문 보조사 ‘가/야’가 붙거나, ‘-녀’, ‘-려’ 등의 종결 어미에 의해 실현됨. 예 이 썩리 너희 종가/저므며 늘구미 잇노녀
객체 높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어나 부사어의 지시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습-/-줍-/-습-)가 존재함. 예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님을 보습고져 흐노니 → 목적어의 지시 대상 ‘스승님’을 높이기 위해 ‘-습-’을 사용함. 세존의 안부 묻줍고 → 부사어의 지시 대상인 ‘세존’을 높이기 위해 ‘-줍-’을 사용함.

(2020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196쪽)

2020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13번 문항은 2020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196쪽에 수록된 ‘중세 국어의 의문문 표현’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개발한 문항이다. 이러한 내용은 문법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교과서, EBS 연계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어 영역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